

2024년도 요코하마시 외국인 의식 조사 [개요판]

1 사업의 조사 개요

	항 목	내 용
<p>■조사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코하마시의 외국인 인구는 2024년 4월 시점에 약 12만 명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내 거주 외국인의 생활 의식이나 요구를 파악하여 시정 운영이나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코하마시 외국인 의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표는 우송했고, 응답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주민 기본 대장에서 무작위 추출한 만 18세 이상의 시내 거주 외국인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1,512건(회수율 30.2%)이 응답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 만 18세 이상의 시내 거주 외국인 5,000명 ※주민 기본 대장에서 무작위 추출
	회수 수	· 1,512건
	회수율	· 30.2%
	조사 방법	· 우송을 이용한 무기명 조사(우송 또는 인터넷으로 응답)
	조사표 대응 언어	·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조사 기간	· 2024년 7월~8월
	조사 결과 보는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SA: 단일 응답 방식 설문 MA: 복수 응답(제한 없음) 방식 설문 LA(제한 질문 수): 복수 응답(제한 있음) 방식 설문 n: 해당 질문의 유효 응답 수 응답 비율(모두 백분율[%]로 표시)은 그 질문의 응답자 수를 기수(건수)로 산출했다. 따라서 복수 응답 설문은 전체 비율을 합계하면 100%를 초과할 수 있다. 그리고 소수점 둘째 자리를 반올림하여 산출했으므로 합계가 100%이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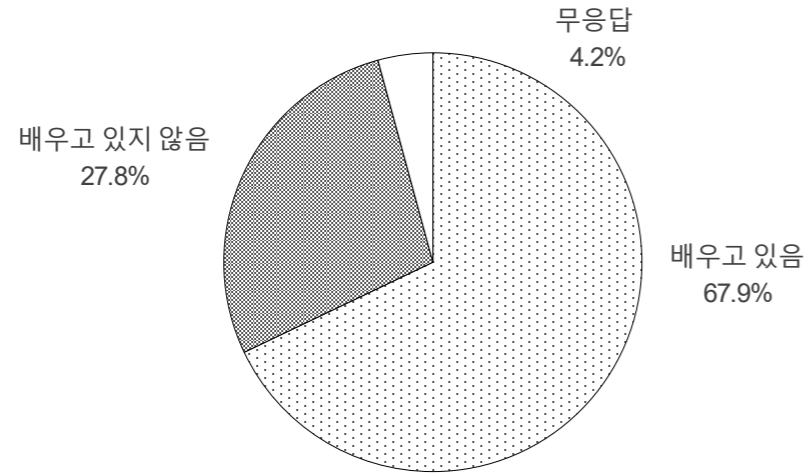
2 조사 결과 포인트

응답자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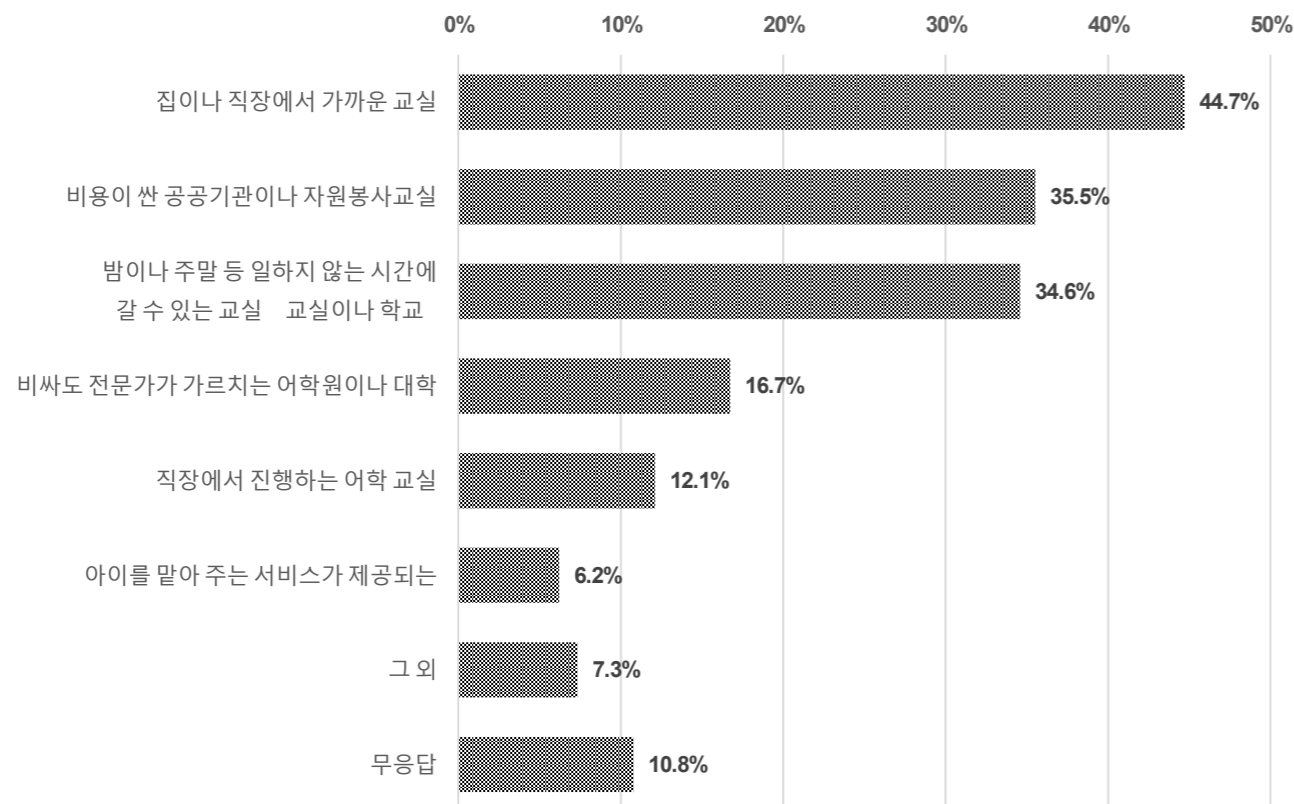
- 【성별(SA)】** 여자 51.8%、남자 41.2%、그 외 0.6%
- 【연령(SA)】** 청년층(39세 이하) 50.3%、중년층(40~59세) 33.5%、고년층(60세 이상) 11.7%
- 【거주 구(SA)】** “나카구”(11.6%)、 “가나가와구”(11.2%)、 “쓰루미구”(10.5%)、 “미나미구”(7.9%)、 “고호쿠구”(7.5%)의 5구가 전체의 48.7%
- 【국적·지역(SA)】** “중국”(33.7%)、 “베트남”(11.4%)、 “한국”(9.1%)이 전체의 54.2%
- 【재류 자격(SA)】** “영주자”(27.0%)、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12.6%)、 “일본인 배우자 등”(4.6%)、 “가족 체재”(4.6%)、 “유학”(4.2%)이 전체의 52.8%
- 【일본에 온 이유(MA)】**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33.9%)、 “일을 찾고 싶어서”(21.2%)、 “유학”(20.6%)、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보낼 것 같아서”(20.2%)
- 【일본 거주 연수(SA)】** “5~10년 미만”(20.6%)、 “20~30년 미만”(13.5%)、 “30년 이상”(13.0%)、 “10~15년 미만”(12.6%)、 “15~20년 미만”(8.7%)이 전체의 68.3%
- 【요코하마시 거주 연수(SA)】** “1~3년 미만”(17.6%)、 “5~10년 미만”(16.9%)、 “1년 미만”(12.8%)、 “3~5년 미만”(12.8%)이 전체의 60.1%
- 【가족 구성(SA)】** “부모와 자식[2세대]”(35.7%)、 “부부(반려자)만 산다”(25.8%)、 “혼자 산다”(25.4%)
- 【직업(SA)】** “회사원·공무원·단체 직원”(49.7%)、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무”(15.9%)、 “전업주부”(9.1%)、 “자영업·자유직”(6.9%)
- 【거주 형태(SA)】** “임대 주택 (민간 아파트, 민간 임대 맨션) ”(28.6%)、 “자택 소유(맨션·공동 주택) ”(19.8%)、 “자택 소유(단독 주택) ”(18.0%)

- 【일본어 이외에 일상 회화가 가능한 언어(MA)】 “영어”(47.4%) 및 “중국어”(40.1%)
-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가? (SA)】 “배우고 있음”(67.9%), “배우고 있지 않음”(27.8%)
- 【일본어를 어떠한 방법으로 배우고 있는가? (MA)】 “혼자서 공부하고 있다 (독학으로)”(46.2%), “직장(일하는 곳)에서”(22.6%), “가족에게 배우고 있다”(11.4%)
- 【일본어를 배우는 목적·목표(MA)】 “(이웃·직장 등의) 일본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해”(72.8%), “일하기 위해”(48.6%), “일본의 사회적 규정 등의 이해”(43.4%)
- 【현재의 일본어 수준(SA)】 “일본어를 듣고 말할 수 있음”(87.8%), “일본어를 읽을 수 있음”(85.1%), “일본어를 쓸 수 있음”(79.0%)
- 【어떠한 곳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가? (MA)】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교실”(44.7%), “비용이싼 공공기관이나 자원봉사교실”(35.5%), “밤이나 주말 등 일하지 않는 시간에 갈 수 있는 교실 교실이나 학교”(34.6%)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가? (SA) > (n= 1,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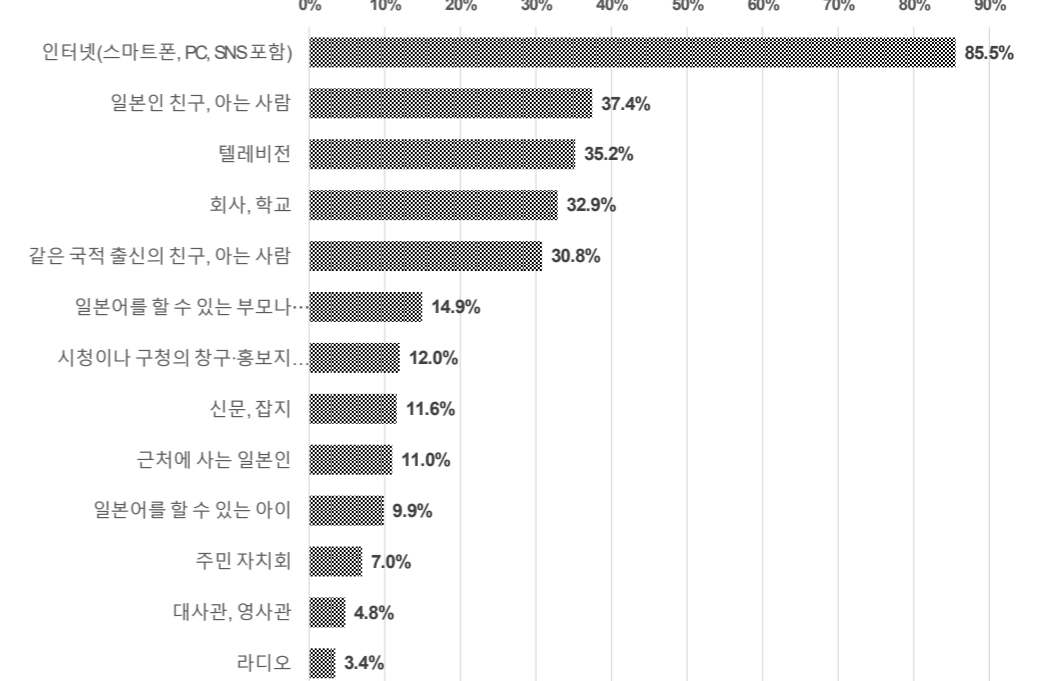


<어떠한 곳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가? (MA) > (n= 1,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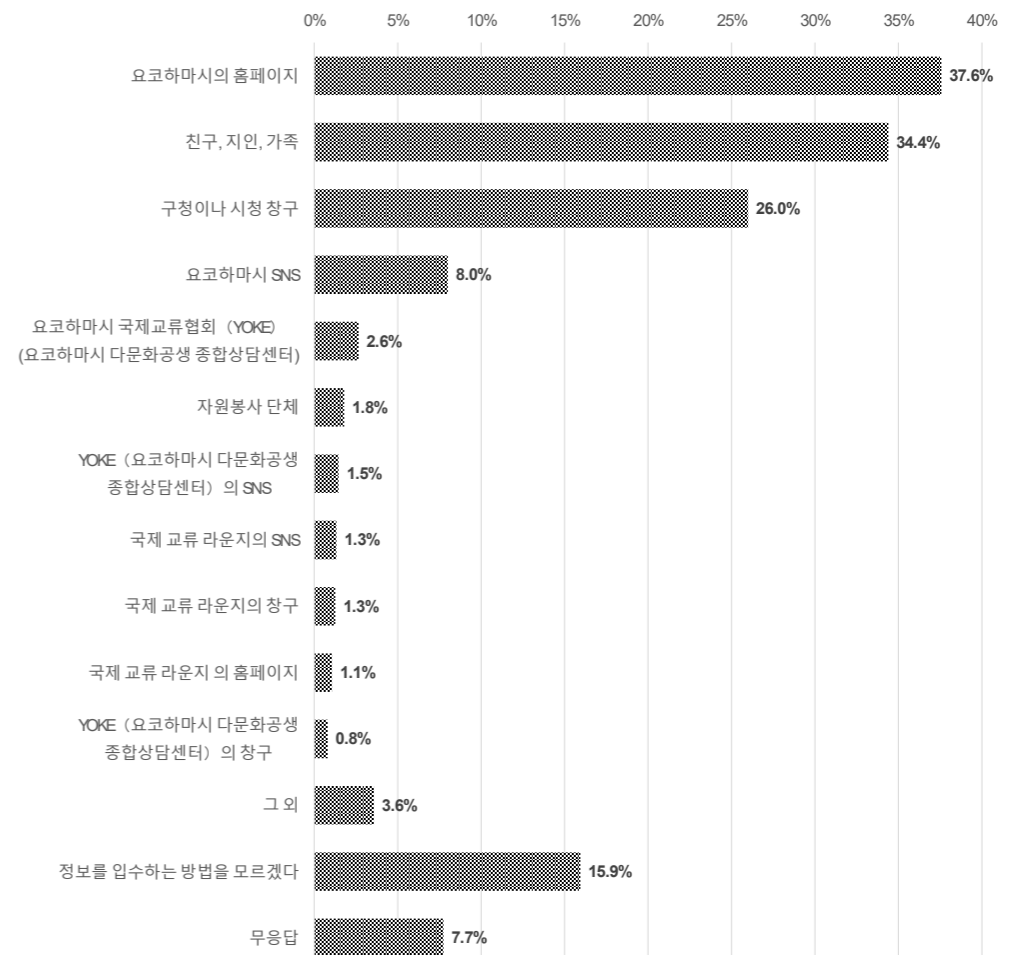


- 【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입수 방법(MA)】 “인터넷”(85.5%), “일본인 친구, 아는 사람”(37.4%), “텔레비전”(35.2%), “회사, 학교”(32.9%), “같은 국적 출신의 친구, 아는 사람”(30.8%)
- 【인터넷에서 자주 찾아보는 정보(MA)】 “홈페이지”(41.8%), “Facebook”(38.8%), “LINE”(37.8%)
- 【시청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입수 방법(MA)】 “요코하마시의 홈페이지”(37.6%), “친구, 지인, 가족”(34.4%), “구청이나 시청 창구”(26.0%)

<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입수 방법 (MA) > (n= 1,512)



<시청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입수 방법 (MA) > (n= 1,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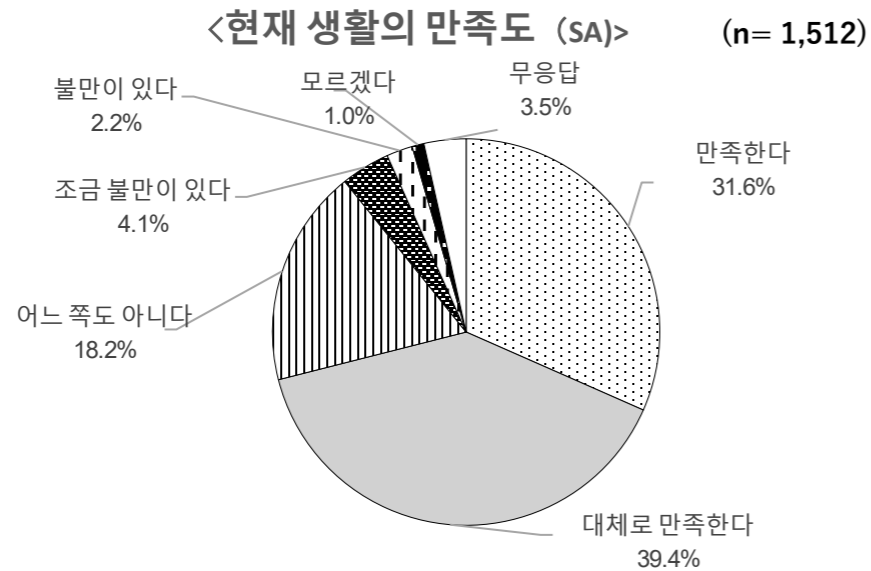


【현재 생활의 만족도(SA)】 “만족스러움” “만족스러운 편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1.0%，“불만족스러움” “불만족스러운 편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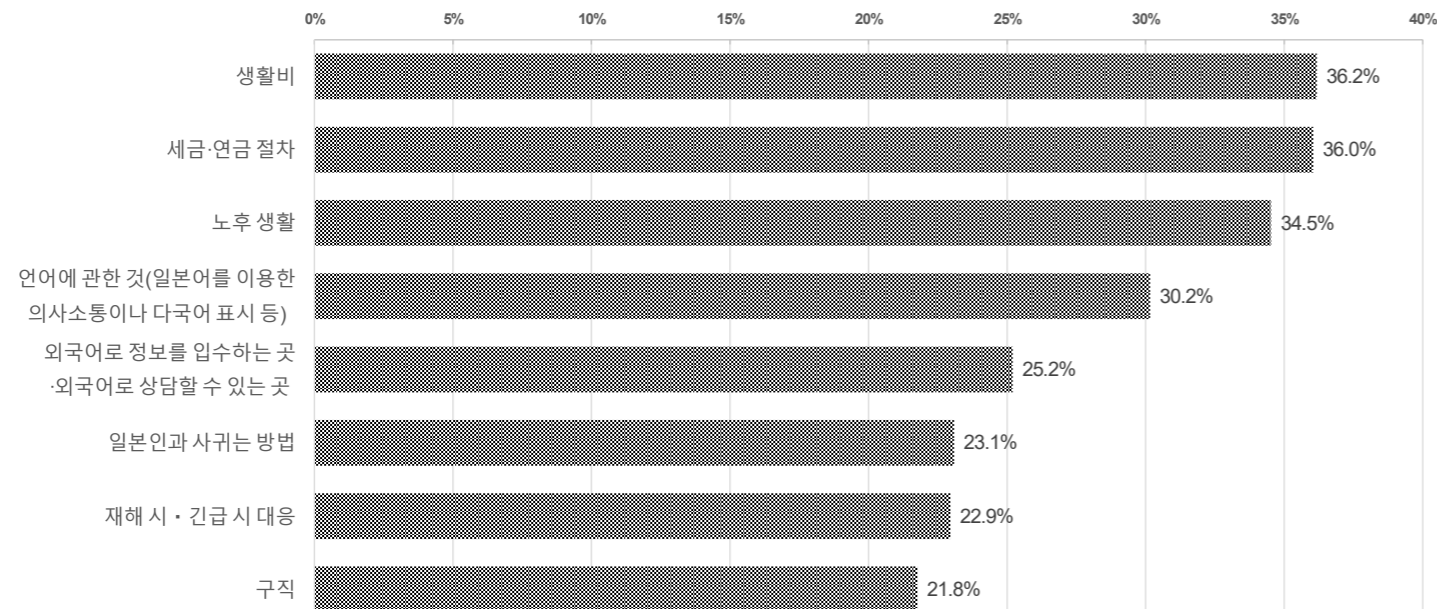
【요코하마의 생활에서 힘든 점이나 걱정되는 점(MA)】 힘든 점이나 걱정되는 점의 상위 3 항목은 “생활비”(36.2%),“세금·연금 수속”(36.0%),“노후 생활”(34.5%)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특히 힘들다고 느낀 점(LA(3))】 “수입 감소 등 금전 문제에 관한 것”(27.6%),“자신이나 가족의 확진, 예방에 관한 것”(18.6%),“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15.8%)

【요코하마의 생활에서 힘든 점이나 걱정되는 점이 있을 때 상담하는 곳(MA)】 “가족”(46.3%),“같은 국적 출신의 친구, 아는 사람”(41.1%),“일본인 친구, 아는 사람”(37.2%),“상담할 곳이 없다”(4.3%)



<요코하마의 생활에서 힘든 점이나 걱정되는 점 (MA) > (n=1,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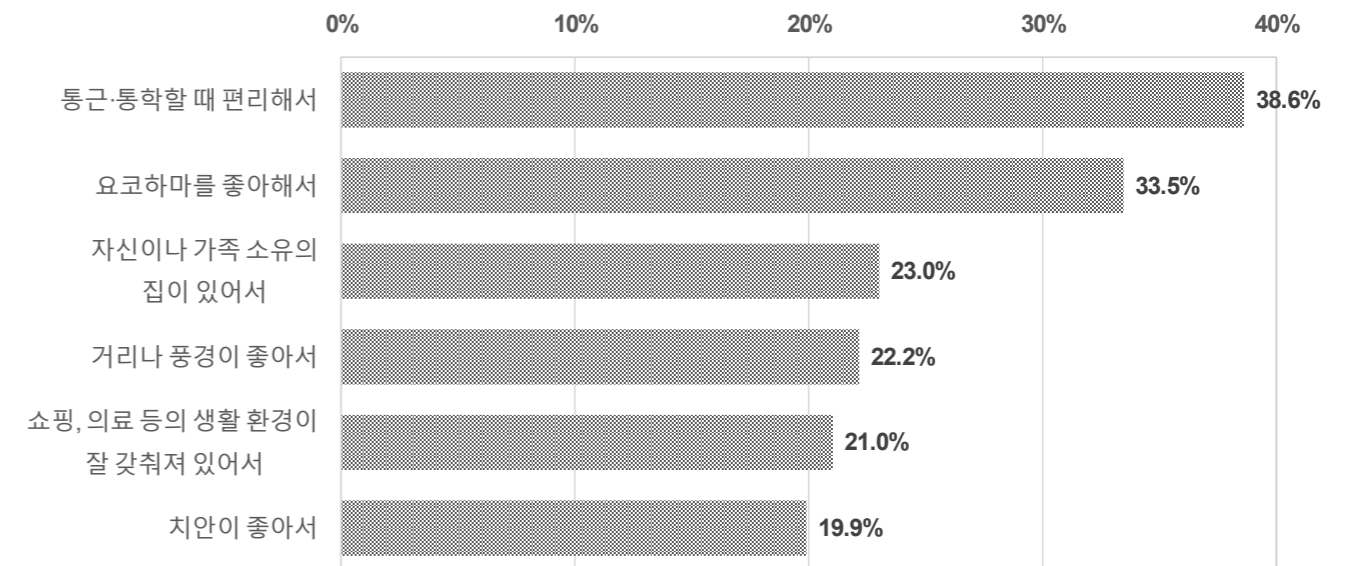
【이웃과의 교류(SA)】 “길에서 만나면 인사 정도는 한다”(47.8%),“얼굴도 잘 모른다”(24.5%),가끔 서서 이야기를 나눈다”(13.9%)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느낌(SA)】 “서로의 생활에 참견하거나 생각을 강요하지 않아서 살기 좋다”(59.2%),“인간관계가 깊지 않아 외롭다”(18.3%),“사람 간의 유대 관계가 강해서 살기 좋다”(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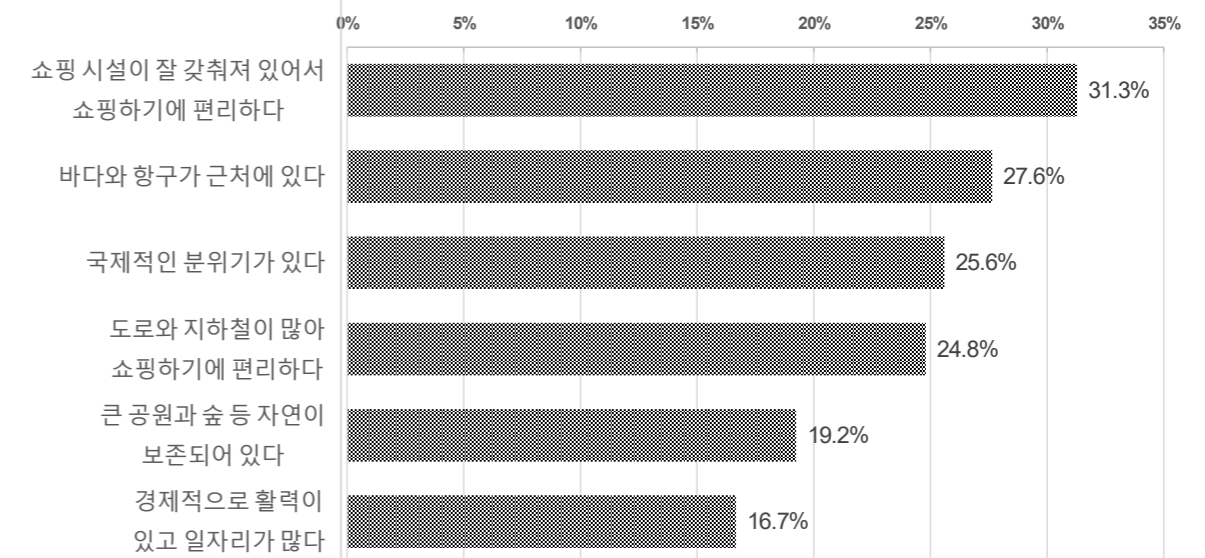
【요코하마에 거주하는 이유(MA)】 “통근·통학할 때 편리해서”(38.6%),“요코하마를 좋아해서”(33.5%),“자신이나 가족 소유의 집이 있어서”(23.0%)

【요코하마에 매력을 느낀 점(LA(3))】 “쇼핑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쇼핑하기에 편리하다”(31.3%),“바다와 항구가 근처에 있다”(27.6%),“국제적인 분위기가 있다”(25.6%)

<요코하마에 거주하는 이유 (MA) > (n=1,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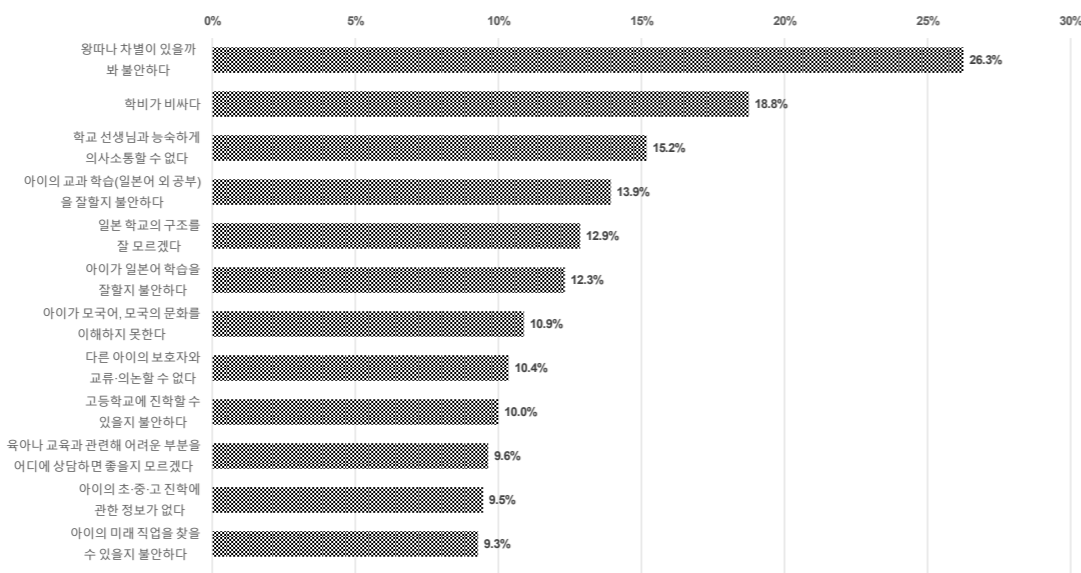
<요코하마에 매력을 느낀 점(LA(3))> (n=1,512)



육아, 교육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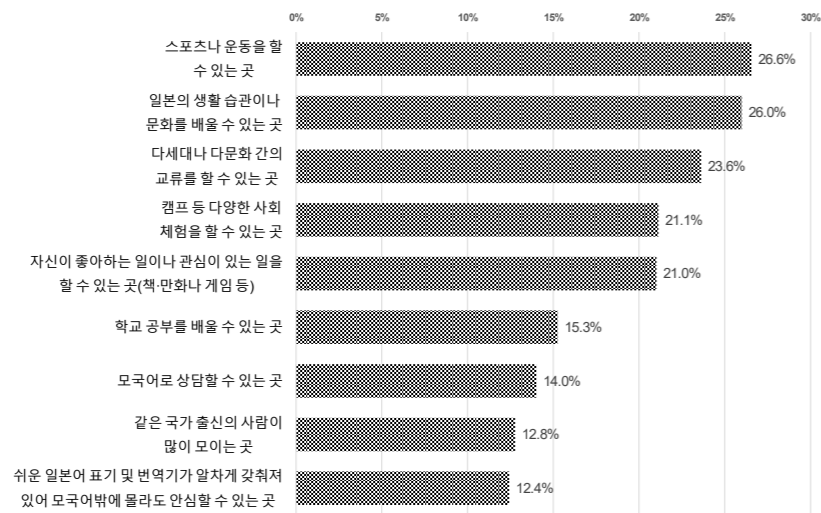
- 【0 세~5 세, 6 세~14 세, 15 세~18 세 자녀의 유무(MA)】** “0 세~5 세 자녀가 있음”은 전체의 15.1%, “6 세~14 세 자녀가 있음”은 전체의 22.5%, “15 세~18 세 자녀가 있음”은 전체의 8.3%
- 【자녀의 중학교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SA)】** “일본 고등학교에 통학”은 전체의 81.1%
- 【자녀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MA)】** “아이가 일본어를 할 수 없다”(28.6%),“일본의 교육이 자신의 아이에게는 맞지 않다고생각하기 때문이다”(28.6%)
- 【육아나 자녀 교육 등과 관련하여 힘든 점(MA)】** “왕따나 차별이 있을까 봐 불안하다”(26.3%),“학비가 비싸다”(18.8%),“학교 선생님과 능숙하게 의사소통할 수 없다”(15.2%)
- 【자녀가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장소로서 어떠한 곳이 좋은가?(MA)】** “스포츠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곳”(26.6%),“일본의 생활 습관이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26.0%),“다세대나 다문화 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곳”(23.6%)

<육아나 자녀 교육 등과 관련하여 힘든 점(MA)> (n=560)



<자녀가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장소로서 어떠한 곳이 좋은가?(MA)> n=885

-본인이 29세 이하이거나 0세~18세 자녀가 있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재해 방지에 대해서

- 【지역 방재 거점의 인지도(SA)】** “지역 방재 거점을 알고 있고, 장소도 파악하고 있다”(38.5%),“지역 방재 거점은 알고 있지만,장소는 모른다”(25.5%),“모른다”(30.7%)
- 【평소의 재해 대비(MA)】** “음식과 물을 준비해놓고 있다”(49.9%),“일기예보를 자주 확인하고 있다”(41.3%),“라디오, 손전등 등을 준비하고 있다”(20.6%),“특별히 준비하지 않고 있다”(19.8%)

인권·다문화 공생에 관하여

- 【인권과 관련하여 특히 해결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점(LA(3))】** “의견이나 행동, 문화 등을 존중하지 않는 것”(16.7%),“소위 헤이트 스피치 등 차별적인 발언이나 행위를 하는 것”(16.3%)
- 【일본인에게 바라는 점(MA)】** “차별 의식을 지니지 않았으면 좋겠다”(33.5%),“친구가 되고 싶다”(26.7%),“지역 행사,이벤트 등에 외국인이 참가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25.1%)
- 【지역 활동의 경험(MA)】** “주민 자치회 나 PTA”(13.3%),“공원 청소나 꽃 가꾸기”(7.5%),“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의 지원”(7.3%),“특별히 없다”(54.6%)
- 【지역 활동의 계기(MA)】** “일본인에게 권유받았다”(34.4%),“지역에 공헌하고 싶어서”(30.7%),“스스로 시작했다”(21.1%),“시간이 있어서”(21.1%)
- 【경험해 보고 싶은 지역 활동(MA)】** “언어를 가르친다”(16.4%),“통역·번역을 한다”(15.0%),“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의 지원”(14.6%)
- 【지역 활동 참가의 구조, 지원 희망(LA(3))】** “야간이나 휴일 등 일하지 않는 시간에 참가할 수 있는 것”(43.5%),“일본인의 권유”(26.7%)

<경험해 보고 싶은 지역 활동 (MA)>

